경향닷컴 기사 프린트 페이지 인쇄하기

[책과 삶]“권력과 압제에 맞서 진실을 말하라”

• ‘닫힌’ 한국 정치철학의 고민과 비전

▲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 곽준혁 | 한길사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마키아벨리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신진 정치철학자인 지은이는 한국사회가 두가지 면에서 빈곤하다고 말한다. 모두가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서로 다른 의견의 조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맹목적인 권력추구 현상이 빚은 현실주의가 희망의 빈곤을 낳았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그러면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가 발목이 잡혀 있는 경계와 편견을 넘어 새로운 이념적 지평의 씨앗을 던져줄 가능성이 엿보이는 5명의 현대 정치철학자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넘어 공화주의의 새로운 토대를 다진 필립 페팃, 다문화·탈민족 시대의 민족주의 이론가 데이비드 밀러,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자이자 급진 민주주의 이론가인 샹탈 무페, 민주적 교육의 이론가이자 실천가인 에이미 것만, 개인의 선택과 공공성의 발현이 동시에 충족되는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마사 너스바움이 그들이다.

지은이는 각각의 사상가들이 그려온 사상적 궤적과 장단점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를 준비시킨 뒤 진지한 대담으로 현대 정치철학의 고민과 비전을 보여준다.

인상 깊은 것은 각각의 대담 뒤에 이들의 사상으로 한국사회를 분석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그는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민적 인내의 필요성, 갈등조정 메커니즘으로서 심의민주주의를 강조하고 한국에서 민족주의 없는 애국심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 책을 딱딱한 학술서로 치부하고 넘겨버릴 수 없는 이유다. 에이미 것만은 정치철학의 역할을 “인권, 자유와 다른 중요한 정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권력에 맞서 진실을 말하는 것, 그리고 부패, 전제, 잔인함, 그리고 압제에 맞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 지은이 자신을 포함한 한국의 정치철학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1만7000원

<김재중 기자>

입력 : 2010-05-28 17:32:37 | 수정 :

- Copyright ⓒ 1996 - 2010 . 이 페이지의 모든 저작권은 (주)경향닷컴에 있습니다 -